

‘강화 새 100년 기틀을 위한 발걸음’ 박용철 강화군수,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총력

첨단산업과 관광이 어우러진 '스마트 강화' 구상



강화경제자유구역 위치도

박용철 강화군수가 강화군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핵심 프로젝트로 설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각종 규제 완화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정부 정책이다.

박 군수는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일원 10.03km², 약 300만 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아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려 강화군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강화군은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국가유산·농림지역 규제 등 중첩규제로 지역개발이 어려워 심각한 인구감소, 소멸위기 지역으로 들어섰다. 강화 경제자유구역지정은 국가 차원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도, 영종, 청라 사례로 증명된 경제자유구역의 효과

현재 인천에는 송도, 영종, 청라 등 3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된 바 있다. 이 지역은 외국 투자 유치 부문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캠퍼스와 국제기구 유치 등의 성과를 나타냈다.

바이오 의약품, 첨단 제조업, 기계 부품 등 주력산업 분야의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지역경제가 크게 성장했다. 2022년 기준 총 3,821개의 기업이 입주해 고용효과를 내고 있다.

공항 옆 황금 입지… 미래산업의 요람으로

강화는 인천국제공항과의 우수한 접근성과 저렴한 조성 원가로 기업 투자유치 경쟁력이 높다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송도, 청라, 영종 경제자유구역과 가까워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에도 최적이다.



강화군은 경제자유구역에 그린바이오, 스마트농업 등 첨단산업 단지와 인공지능 기반 모빌리티 물류시설, 해양레저·휴양 복합관광산업 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그린바이오 산업은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둔 산업으로 강화군의 청정 자연환경과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분야이다. 바이오 연료, 미생물 비료와 같은 그린바이오 기술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촉망받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강화군의 전통적인 농업 기반을 첨단화하는 동시에, 관광산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박 군수의 비전을 잘 보여준다.

주민과 함께 그리는 '강화의 내일'

강화군은 강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지정을 위해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민설명회, 자문회의 등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천시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용철 군수는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젊은 층이 유입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이 반드시 지정되어야 한다”면서, “강화의 새 역사를 써나갈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지정을 위해 다방면에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1분기 1,278억원 집행으로 민생경제 살린다”

강화군, 2025년 1분기 신속집행 추진 보고회 개최

신속집행 추진 보고회 통해 목표 설정



강화군, 1분기 신속집행 추진 보고회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올해 신속집행 대상액 3,560억 원의 35.9%인 1,278억 원을 1분기 집행 목표로 설정하고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일 박용철 군수 주재로 개최된 ‘2025년 1분기 신속집행 추진 보고회’에서는 ▲2025년 1분기 신속집행 목표 및 추진 계획 ▲부서별 집행 실적 점검 ▲집행 부진 사업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실무 위주의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지역경제에 과급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사업과 동절기 추운 날씨로 중지되었던 공사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기성금 및 선금 지급을 통해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박용철 군수는 “경기가 불확실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강화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되는 재정들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최백하 기자

강화군,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총력

노인보호구역 16개소, 어린이보호구역 13개소 정비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물 대대적 확충 예고



강화군,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에 10억 예산 확보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총 10억 원의 시비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본격적인 공사에 나선다.

군은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8억 1,4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1억 9,500만 원의 인천시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어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6월에 공사에 착수해 9월까지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인과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행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들을 보강한다. 무단횡단 방지 중앙분리대, 안전웬스, 미끄럼 방지 포장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운전자가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제대로

인지하고 속도를 낮추도록 차면 도색, 노면 표시, 표지판 설치,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 등을 추진한다.

노인보호구역 정비 대상은 내4리 마을회관, 선행리 경로당, 길정리 마을회관, 삼성2리 마을회관, 황정2리 마을회관, 녘성리 마을회관, 건평리 마을회관, 선두2리 마을회관, 선두5리 선택 마을회관, 길직2리 마을회관, 길직1리 마을회관, 선두3리 마을회관, 장정2리 마을회관, 누촌 마을회관, 고구1리 마을회관, 색동원 등 총 16개소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대상은 감룡초등학교, 선원초등학교, 삼성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 송해초등학교, 대월초등학교, 명신초등학교, 양사초등학교, 조산초등학교, 삼산초등학교, 해명초등학교, 길상초등학교, 강화유치원 등 총 13개소이다.

박용철 군수는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은 사회 구성원이 함께 나서 보호하고 배려해야 한다”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하고, 어르신들이 걱정 없이 산책에 나설 수 있도록 도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강화군의회, 배충원 의원 사고 관련 공식 입장



강화군의회

강화군의회(의장: 한승희)는 지난 19일 배충원 의원(전 의장)이 불의의 사고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충원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의정활동에 헌신해왔으나, 불의의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에 강화군의회는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방의원이 임기 중 자격소멸 요건은 사망, 사직, 퇴직, 징계에 의한 제명, 자격심사에 의한 자격상실 의결, 선거 또는 당선 무효, 주민소환투표에 의한 자격상실의 경우가 있다. 의원의 사직 또한 본인만이 결정할 수 있으며, 제3자의 대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지방의원의 자격은 적법한 당선인일 것, 겸직이 금지된 직에 취임하지 않을 것,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을 계속 보유할 것에 해당되며, 군민들이 선출하신 의원이 불가항력의 사고를 당하였다고 다른 의원들이 자격을 심사하기에는 명확히 명시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들이 배충원 의원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자격을 심사하기에는 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배충원 의원의 가족이 사직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사직서는 선거법상 효력이 없다” 하였습니다.

또한 강화군 고문변호사 3명의 법률 자문 결과 “의식불명인 의원의 사직서를 그 가족이 의원의 사직에 대한 의사가 확인 내지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제출된 무효인 사직서를 토대로 의원의 사직을 지방의회에서 의결로 허가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강화군의회는 배충원 의원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질의 결과를 바탕으로 강화군의회 간담회를 통하여 제302회 임시회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군의장으로 한승희 의원을 부의장으로 고복숙 의원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한승희 의장은 “군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강화군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군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강화군의회가 되도록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 최백하 기자

제106주년 강화 3·18독립운동기념식 성료



제106주년 3·18 독립운동기념식

사)강화3·1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은용)는 3월 18일 오전 11시 강화읍 관청리 3·1운동기념비 앞에서 제106주년 강화3·18독립운동기념식을 가졌다.

이 기념식에는 박용철 군수, 배준영 국회의원, 한승희 군의회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이진환 이동휘선생기념사업회 강화지부장, 이성동 강화

선비지향포럼회장 등 내빈과 회원 등 70여명이 참석하였다.

김상만 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국민 의례, 이은용 이사장과 배준영 국회의원, 박용철 군수의 헌화에 이어 독립지사 후손과 회원들의 헌화가 있었다.

이어 한기출 부이사장의 기미독립선언서 낭독,

3·1절노래 제창, 이은용 이사장의 기념사와 배준영 국회의원, 박용철 군수, 한승희 군의회의장의 축사가 있었고, 이어 한상운 자문위원의 선창으로 만세3창을 하였다.

2부 순서로 故 박길양(朴吉陽) 애국지사에 대한 제5회 올해의 강화독립운동가패와 위로금(일금 50만원)의 전달식이 있었다. 고 박 지사는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출신으로 1921년 경기도와 삼남 지방을 돌며 군자금을 모집하다가 일제에 피체되어 옥고를 치렀으며, 1925년 신만사건으로 피체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혹독한 고문으로 사망하였다. 정부는 그에게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한 바 있다.

한편, 이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혼란한 국내 정세와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질서를 극복하기 위해 3.1독립운동 선열들이 보였던 독립정신을 본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군민이 합일(合一)의 정신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사)강화3·1운동기념사업회 이은용(010-3591-6305)

후계농업경영인 강화군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

고진우 신임회장 군 - 농업인 간 소통창구 될 것



강화군 후계농업경영인 강화군연합회장 이취임식 개최

후계농업경영인 강화군연합회(회장 고진우)가 지난 18일 회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용철 강화군수, 한승희 강화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관내 유관단체 관계자와 농업인 등 12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주혁돈 전임 회장은 “강화군 농업 발전을 위해 힘써온 노력을 회고하며 새로 취임하는 고진우 회장님의 리더십 아래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길 바란다”고 전했다.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된 고진우 회장은 “역대 회장님들의 열정과 뜻을 이어 받아 후계농업경영인 강화군연합회의 위상을 높이겠다”며, “강화군과 함께 호흡하며 군과 농업인 간의 소통창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후계농업경영인 강화군연합회는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도모를 위해 활동해 왔으며, 앞으로도 강화군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화군, ‘찾아가는 보건소’ 2025 시즌 시작

강화군민의 건강파트너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측정 및 건강상담 진행



찾아가는 보건소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주민들의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보건소’로 불리는 이동건강부스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건강부스는 다중이용시설인 경로당, 노인

복지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혈압, 당뇨, 고지혈증 수치를 측정하고 건강상담,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지난해 총 91회에 걸쳐 2,406명이 참여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더욱 확대하여 100회 이상 운영할 예정이다.

이동건강부스에서 기초 검사를 통해 만성질환 의심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추가 혈액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구강보건사업, 감염병 관리 사업, 금연사업, 치매 예방사업, 정신건강사업 등 보건소의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여 건강정보를 한꺼번에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동건강부스 운영으로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건강한 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군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건강부스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경로당이나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는 강화군 보건소 방문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찾아가는 보건소

문의 | 강화군보건소 방문보건팀 (☎ 032-930-4033)

강화군민의 건강파트너

2025년 4월 2일 인천시의회 의원 강화군 보궐선거



기호1. 더불어민주당
오현식 (39세)

안녕하십니까?

강화에 진심을 다하는 강화군 인천시의회 후보 더불어민주당 기호1번 오현식입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강화에 꼭 필요한 예산이 강화 곳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길 수 있는 책임자는 철공소를 하시는 아버지와 꽃집을 하시는 어머니께 배운 성실함과 근면함, 또한, 체육학과 출신으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몸도 마음도

- ▶ 고인돌체육관, BMX 경기장 강화군으로 재산 이관
- ▶ 환경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 ▶ 강화관광 활성화!
- ▶ 청년창업 1번지 강화!
- ▶ 40대50대60대(456세대)지원책 마련!
- ▶ 노인복지예산 확대!

- 강화읍 신문리 출생, 강화초교 졸업
- 육군 포병장교 만기전역
- 강화중앙교회 집사
- 2선 강화군의회(8~9대)(전)

건강한 2선 군의회 출신인 오현식이 이번 강화군 인천시의회에 꼭 필요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않고, 강화를 위해 묵묵히 걸어온 길, 살기 좋은 강화, 더 크게 발전하는 강화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기호 1번 오현식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 강화군의회 예산결산위원장(제295회)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 협의회장(전)
-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청년위원장(2선)(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현)



기호2. 국민의힘
윤재상 (66세)

저4월 2일 인천시의회 보궐선거 잔여 임기는 불과 1년 남짓입니다.

일을 배울 시간도 연습할 여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당선 즉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소통과 화합의 강화군을 건설하는 데 보탬이 될 시의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큼니다.

이런 민심이 이어져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군민분께서 강화군 발전을 위한 예산을 누구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시의원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재선
- 강화군의회 의원 재선
- 전 강화군의회 의장

풍부한 의정 경험과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저 윤재상이 적임자입니다.

강화는 하나입니다.

배준영 국회의원, 박용철 군수와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강화를 만드는데 윤재상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4월 2일 윤재상이 승리할 수 있도록 큰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재선
- 강화군의회 의원 재선
- 전 강화군의회 의장

2025년 4월 2일

강화군의회 의원 강화군 보궐선거



기호1. 더불어민주당
차성훈 (33세)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강화 군민 여러분!

저는 강화군의회 보궐선거에 출마한 차성훈입니다.

젊은이들이 어르신과 부모님께 효도하는 강화! 소상공인이 살맛나는 강화!

서로 융합하여 행복한 강화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첫째 교통약자, 어르신들이 부담없이 병원 진료 등 강화 곳곳을 다니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파격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청년창업자, 노후된 음식점 등 개선하여 “신바람 나는 장사”를 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셋째-우리 강화군이 청년들에게 보금자리가 되어 일자리 창출과 청년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저 차성훈을 믿어 주십시오!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민주당 인천시당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전)
- 합일초, 강화중, 덕신고 졸업



기호2. 국민의힘
허유리 (35세)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화군의회의원 보궐선거 가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허유리 입니다.

강화군 최초 30대 여성후보라는 자체에 놀라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는 우리 군에도 젊고 생동감 있는 의원이 필요합니다.

강화에서 나고 자란 허유리는 강화초·강화여중·강화여고 졸업 후, 대학 시절 강화-서울간 통학을 하며 단 한 번도 강화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강화를 한 번도 비워둔 적이 없습니다.

군민 여러분!‘그럼 당신에게 가장 강력한

강점이 무엇이나? 왜 우리가 허유리 후보를 뽑아야 하느냐? 뽑아야만 이유가 무엇이나?’ 물어봐주십시오.

강화에서 태어나 10대, 20대, 30대를 보내며 우리 군에 필요한 것과 한계점, 그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해 늘 고심하는 허유리 후보. 가장 좋은 것, 가장 맛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내 가족에게 주고 싶은 이 마음으로 군민들에게 봉사하겠습니다.

허유리를 키워주신 강화군!
이제는 국민의힘 기호2번 똑순이군의원 후보 “허유리”가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화초, 강화여중, 강화여고 졸업
- 추계예술대학교 졸업
- 강화군수 보궐선거 박용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장(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여성분과위원
- 국민의힘 인천시당 여성나눔특별위원장 -강화참좋은재가노인복지센터 대표

2025년 4월 2일 강화군의회 의원 강화군 보궐선거



기호5. 무소속
구본호 (55세)

저는 군대에서 소령 예편 후 23년간 농협에서 농업인들과 소통하며 지역 경제와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힘썼습니다.

이제 군의회 의원에 출마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마트 농업 도입과 농산물 판로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맞춰 노인의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모든 군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969년 6월 18일 강화군 하점면 출생
- 대성 고등학교 졸업
- 순천향대학교 단과대학 학생회장
- 순천향대학교 졸업
- 육군 학사장교 21기 예비역 소령 전역
- 전)교동농협 10년 근무
- 전)강화남부농협(길상,불은,양도,화도)13년근무

- 현)휴먼노인대학 주간보호센터 대표이사
- 현)강화군 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현)강화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노인분과 위원
- 현)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운영위원
- 현)강화군 재향군인회 이사



기호6. 무소속
박을양 (59세)

안녕하십니까? 언제 어디서나 주민과 함께하는 강화군의회 후보자 무소속 박을양입니다.

점점 쇠락해져 가는 사랑하는 나의 고향 강화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출마를 합니다.

강화군의 미래 발전에 미력이나마 저의 힘을 보태어 언제 어디서나 주민과 함께하고,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추억 속의 아름다운 고향 강화로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도록 최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의 고향 강화에 하고 싶은 일

1. 어르신들의 의료 복지 확충 지원
2. 어르신들의 수익 창출, 처우 개선 마련
3.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취미 생활 지원
4. 어르신들의 생활 환경 개선
5. 어르신을 모시며 효를 실천하는 자녀의 지원책 마련
6. 지역 상권 발전 육성책 마련
7. 지역 농. 특산물의 직거래 강화 방안 모색
8. 지역 농업의 인력 확충 방안 모색
9. 지역 인구 증가 대책 마련
10. 지역 농. 특산물 판매 국제화 추진

- 강화읍 신문리 9남매의 막내로 출생
- 강화초, 덕신중, 강화고 졸업 후 병역의무를 마침
- 베이스 기타 연주자, 주점운영, 전기공사업, 여행사, 부동산 중개업, 보험업 등의 다양한 직업을 가지며 40이 넘는 늦은 나이에 김포대를 졸업
- 재향군인회, 의용소방대, 라이온스 클럽, 바르게살기, 사회인야구단 구성원으로 성실히 활동 중

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 청년농 소통협의체 간담회 개최

청년농 의견수렴 및 농지지원사업 강화 방안 모색



청년농 소통협의체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지사장 양희충)는 3월 10일, 지사 회의실에서 청년농 소통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강화군의 청년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 및 공사 담당자 등 총 10여명이 참석하여 청년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듣고, 청년농업인의 농지지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안정적 영농정착 유인을 위한 신규사업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등 간담회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강화옹진지사는 농지은행의 「맞춤형농지지원사업」 및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147농가에 총 575필지 264ha를 지원하며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이끌고 있다. 또한 올해는 지난해 보다 청년농업인을 위한 농지지원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농지 확보 등 초기자본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양희충 지사장은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이 성공적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소통간담회를 계기로 농업의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강화군, 국립강화고려박물관 본격 유치전 돌입

남한 지역 유일한 고려 수도... 문화유산 풍부 범국민 서명운동, 정책 토론회 등 전방위 총력전 예고



강화군,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유치전 홍보물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국립 강화 고려박물관 건립을 위해 전방위적인 유치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국립박물관이 없어 고려 역사 문화 보존과 연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

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분단 이후 개성과 남한에서 수집된 고려 문화유산이 전국의 박물관에 흩어져 있는 실정이기도 해 강화군의 움직임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강화는 고려가 몽골의 침략을

피해 39년간 수도로 삼았던 고도(古都)로, 남한 지역 유일한 고려 역사 중심지로 평가받는 지역이다. 개성 만월대를 본떠 지은 고려궁지와 고려왕릉 4기, 팔만대장경을 보관한 선원사지 등 고려 문화유산이 풍부하다.

군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국립 강화 고려박물관 건립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박물관의 분관을 권역별로 균형 있게 건립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기본계획에도 맞닿아 있으며, 고려 문화권으로는 ‘강화’가 최적지라 판단하고 있다.

4월에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강화의 고려 문화를 홍보하고, 5월에는 국립박물관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고려시대는 500년 찬란한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고려 문화 유산을 제대로 보존하고 전시하는 국립박물관이 없다”며 “국립 강화 고려박물관을 통해 언제든지 고려 문화유산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벽하기자

강화군, 여름철 모기박멸을 위한 특별방역 돌입

해빙기 유충은 소량의 약품으로도 큰 효과 / 사전 방제로 모기 개체 수 억제



강화군, 여름철 모기와와의 싸움은 지금부터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4월 초까지 해빙기 유충 특별 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방제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빙기 방역은 월동 유충의 제한된 서식 환경과 영양상태 고갈로 소량의 약품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군은 하천, 수로, 웅덩이, 집단시설 정화조 등을 대상으로 월동 모기 유충서식지 조사, 친환경 유충구제 방역 등을 실시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모기 유충 1마리를 잡는 것은 성충 500마리를 잡는 효과가 있다”며 “월동 모기 방제가 한해 성과를 좌우하는 만큼 선제적 방역으로 말라리아와 일본뇌염 등 모기 매개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집주변 화분 받침대를 포함해 고인 물을 제거해 주시기 바라며, 제조 작업을 미리 진행하는 등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화군, 농가용 저온저장고 140동 지원

올해 저온저장고 지원 예산 5억 3천만 원 확보 / 농산물 상품성 향상, 출하시기 조절 등 효과



강화군 저온저장고 140동 지원사업 추진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올해 농가용 저온저장고 140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가용 저온저장고는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

시켜 상품성 향상은 물론 출하시기 조절 및 자체 보관을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농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는 시설물이다.

군은 올해 5억 3천만 원의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약 140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저온저장고 9.9㎡(3평)형은 378만원, 133㎡(10평)형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보조비율은 60%이다.

신청은 오는 3월 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강화군에 거주하는 농업(법)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관내의 1,000㎡이상 농지 또는 330㎡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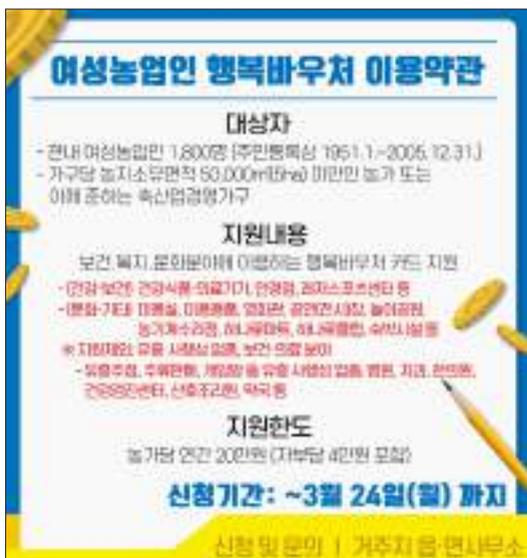
비닐하우스에서 신선농산물(화훼, 과수, 채소)을 재배 또는 재배 예정이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 완료 후 읍·면 선정심의회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 확정할 예정이다.

박용철 군수는 “농가용 저온저장고는 농민들은 제 값을 받고, 소비자는 신선 농산물을 오랜 기간 받아볼 수 있어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지원 사업”이라며, “농업인과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고품격 농산물 생산·유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화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확대

1인당 20만원 바우처 카드 발급 / 지난해보다 440명 늘어난 1,800명에 혜택 제공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을 수혜 대상자를 늘려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총사업비 3억 6천여만 원을 투입해 1,800명의 여성농업인에게 혜택을 지원한다.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1인당 지원액은 자부담 4만 원을 포함한 총 20만 원으로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아 연말까지 다양한 문화, 복지 분야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용처로 영화관, 서점, 스포츠센터, 안경점, 미용실, 농협하나로마트 등이 있다. 단 의료(병원, 약국) 및 유흥, 사행업종

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강화군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만 7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이다. 세대원 전체 합산 농지 소유면적이 5ha 미만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업 경영 가구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3월 24일(월)까지로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작업과 가사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농업인들에게 행복바우처 카드가 즐거운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역사
기고

강화도조약을 알아봅시다

이경수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연무당 옛터

방귀 편 놔서 성낸다더니

올해는 2025년입니다. 150년 전인 1875년(고종 12)에 초지진 수비군이 무단 침입한 일본 군함을 쫓아냈습니다. 운요호 사건입니다. 다음 해 1876년(고종 13) 2월, 그들이 다시 강화에 왔습니다.

조선 정부에 따지겠다고 왔습니다. 서계(외교문서) 접수 거부와 운요호 사건에 대한 사과를 받겠다는 겁니다. 중국에 가다가 물이 부족해 물 좀 달라고 간 사람들에게, 그것도 국기를 달아 국적을 밝힌 사람들에게 물은 안 주고 포격할 이유가 뭐냐.

인도주의적으로도 그렇고, 국제법상으로도 그렇고, 조선이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호(제 77호, '운요호 사건의 진실')에서 말씀드린 대로 식수를 구하러 왔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중국 가던 길이라는 말도 거짓입니다. 국기를 달았다는 것도 거짓인 것 같습니다.

조약을 맺으러 오는 거면서 거짓 명분을 내세운 것은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사과를 요구하는 뻔뻔함. 우리는 이를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강화도에서 조선 대표와 일본 대표가 만났습니다.

일본 대표가 짐짓 발끈하여 따집니다.

“우리 선박 운요함이 작년에 우장으로 향하던 중에 귀국 경내를 통과하다가 귀국인의 포격을 받았으니 교린의 우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선 대표가 점잖게 응답합니다.

“애초에 어느 나라 배가 무슨 일 때문에 왔다는 사유를 먼저 통지하지 않고 곧장 방수(防守)하는 곳으로 진입했으니, 변방 수비병의 발포 또한 부득이한 일이었소.”

조선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운요호 사건 때 일본군이 영종도를 분탕한 게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연한 대응입니다. 일본은 운요호 사건을 빌미로 조선을 위축되게 만들고 협상의

우위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대표는 신헌

일본 대표는 구로다 키요타카입니다. 수백 명 군사를 대동하고 강화도로 왔습니다. 구로다의 공식 직함은 전권변리대신(全權辦理大臣)! 변리란, ‘옳고 그름을 따져 알아본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뭘 따져 보겠다는 소리인가? 서계 문제와 운요호 사건입니다. 조약 체결 대표라는 의미는 직함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들을 만날 조선 대표는 강화유수를 지낸 신헌(申櫳, 1810~1884)입니다. 신헌의 공식 직함은 접견대관(接見大官)입니다. 접견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 공식적으로 찾아온 사람을 만남’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에서 사람들이 오니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겠다는 정도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조선은 일본이 강화도에 오는 이유를 전혀 몰랐을까요? 그냥 운요호 사건 등에 관해 시비나 걸러고 오는 것으로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색하지 않았을 뿐, 일본이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려고 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연무당(1876)

일본 대표단이 강화로 오던 중 남양부사(지금 화성시장)를 만났습니다. 남양부사가 왜 왔느냐고 묻자, 일본 대표단은 조선과 새로운 조약을 맺으려고 왔다는 의미로 대답했습니다. 남양부사는 즉시 조정에게 보고했습니다.

조선은 ‘새로운 조약’을 일본과 전통적 우호 관계를 다시 확인하되 조금 더 구체화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수정하는 정도로 여겼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때만 해도 근대적 의미로 ‘개항’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연무당에서 조약을 맺다

한편, 운요호 사건 얘기를 계속해봤자 득 될 게 없다고 여긴 일본 협상단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3조항으로 작성한 조약문 초안을 내놓고 체결을 요구한 겁니다.

신헌은 일본이 내민 조약문을 조정에게 보냈습니다. 조정에서 대책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이걸 거부하고 이걸 승낙해도 되겠다,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신헌은 신헌대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일본 측과 밀고 당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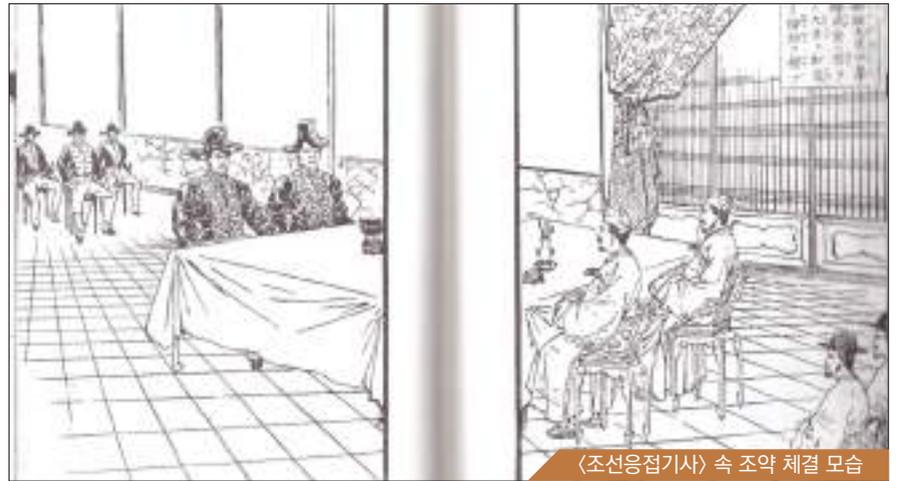
일본 협상단은 군인들을 동원해 위협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조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수만 명 대병력으로 쳐들어올 것이라는 공갈도 치면서 조선을 겁박해댔습니다. 조선 협상단은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위협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조약안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많은 이가 오해합니다. 조선 대표 신헌 등이 일본의 위협에 쫓아서, 조약안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일본이 시키는 대로 도장 쿡쿡 찍어주고 조약을 체결했다고 여깁니다. 그렇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조선 측의 한계도 명확했습니다. 근대적 조약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조약문



조약 체결 장면으로 알려진 사진



〈조선응접기사〉속 조약 체결 모습

의 후폭풍을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초안의 ‘대일본국 황제 폐하와 조선국왕 전하’를 ‘대일본국과 대조선국’으로 고치는 등 국가 체면과 형식적 명분 지키기에 머물렀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실리를 챙겼습니다.

첫 회담하고 거의 20일이 흘러서야 양국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1876년 2월 27일(음력 2월 3일) 강화산성 서문 옆 연무당에서 12개 항목으로 된 강화도조약을 맺었습니다. 공식 명칭이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입니다만, 대개 강화도조약이라고 합니다. 1876년이 병자년이라서 병자수호조약이라고도 하고요.

13개 항목이라고 하지 않았나?

예, 일본이 처음 제시한 건 13개 항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조선이 거부해서 제외했습니다. 제외한 내용은 “... 이후 타국이 조선국과 수호하고 화약(和約)을 의립할 때 만약 이 조약 내에 기재되지 않았는데 별도로 타국에 허락하는 조건이 있으면 일본국도 그 특전을 받아야 한다.”였습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이 일본에 A, B 권리를 주었는데 나중에 조선이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면서 A, B, C 권리를 주게 되면 일본도 자동으로 C 권리를 갖는다는 소리입니다. 이에 조선은 외국과 또 조약을 체결할 일이 없을 것이라며 삭제를 요구해서 관철했습니다.

혹시 강화도조약 12개 항목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다음(Daum)이나 네이버(NAVER)에서 ‘강화도조약 내용과 해설’로 검색하세요. 조약문과 간략한 해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강화도조약 때문에 망했다?

강화도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입니다. 아울러 조선에 불리하고 일본에 유리한 불평등조약입니다. ‘근대적’ 국가가 전근대 국가에 조약을 강요할 때 전근대 국가는 불이익을 당하기 마련이에요.

청나라가 영국과 맺은 개항 조약도 청나라에 불리한 불평등조약이며, 일본이 미국과 맺은 조약 역시 일본에 몹시 불리한 불평등조약이었습니다. 강화도조약은 조선의 치욕이 아닙니다.

조선은 조약 맺을 생각이 전혀 없는데, 일본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회담에 응한 걸까요? 아닙니다. 고종은 이미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아버지 흥선대원군과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일본은 300년 동안 수호하던 곳인데, 이제 세계의 일로 이처럼 여러 날 동안 서로 버티니, 헤아리기 참 어렵다. 정부에서 미리 강구하여 타결할 방책을 만드는 것이 좋을 듯하다.”

강화도조약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평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본과의 ‘근대적’ 관계가 강화도조약에서 비롯되다 보니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불평등조약 자체가 원인이라면 일본부터 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어쨌든 발전의 길을 갔습니다.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원인은 일본의 군사 침략을 막아내지 못한 데 있습니다. 개항 이후 고종을 포함한 지도층의 대처 과정에도 잘못된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강화도조약에 독박을 씌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진 두 장, 큰 오해

인터넷에서 강화도조약을 검색할 때, 으레 따라 나오는 사진 두 장이 있습니다. 이 사진들이 조선을 한심한 나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선 열무당 사진입니다(사진2).

열무당(閱武堂)은 강화읍사무소 옆 ‘강화군가족센터’ 자리쯤에 있었습니다. 무장한 일본군이 여럿 서 있고 그들 옆으로 대포처럼 보이는 무기들이 빼곡합니다. 그 안에서 강화도조약을 맺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연상되는 것이 있지요? 일본군에게 갇혀서 벌벌 떨고 있는 조선 대표단!

아닙니다. 여기서 조약을 체결한 게 아닙니다. 조약 체결 장소는 열무당이 아니라 연무당(鍊武堂)입니다. 연무당은 강화산성 서문 옆에 있던, 진무영 병사들의 훈련장입니다. 지금은 ‘연무당 옛터’(사진1)라는 비석만 서 있지만, 그때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조약을 맺은 겁니다. 연무당과 열무당을 구분하지 않아 생긴 오해입니다.

또 하나의 사진은 조약 체결 장면입니다(사진3).

보고 있자니 우울해집니다. 일본 대표 구로다로 보이는 이가 주인인 양 중앙 상석에 앉았고 조선 대표 신현으로 보이는 노인이 오른쪽에 앉았네요.

죄지는 사람처럼 고개까지 숙였습니다. 빌빌대는 조선, 뭣도 모르면서 일본이 시키는 대로 따르며 숙이며, 조약 맺는 조선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당시 신현은 67살, 구로다는 37살이었습니다. 그렇게도 명분과 격식을 중시하는 조선의 신현이, 그 꼬장꼬장한 신현이 저 자리에 저렇게 쭈그리고 앉아 조약을 맺었을 리 없습니다.

이 사진은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사진이라고 설명할 하지만, 아무리 뜯어봐도 진짜 사진이 아닙니다.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납니다. 일본 교섭단은 강화도에 머무는 동안 구석구석 돌며 많은 사진을 찍어 남겼습니다. 열무당 사진도 그들이 촬영한 것입니다.

꼭 찍어야 할 결정적 장면은 조약 체결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사진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필 당일 사진기가 고장 났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찍었다면? 그랬다면 그들이 공개하기에 불편한, 그런 장면이 찍혔을 겁니다. 그래서 감춰졌을 겁니다. 대신 정체불명의 ‘사진3’이 나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진3’을 강화도조약 체결 장면이라고 믿고, 소개하고, 교육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 교과서에 무장군인 서 있는 열무당(사진2)과 함께 강화도조약 체결 장면이라고 하는 ‘사진3’이 여전히 실려 있습니다. 학교 시험문제는 물론이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도 출제됩니다.

《수신사기록 번역총서 5》(보고사, 2018)라는 책에 일본인 소가 소하치로가 쓴 〈조선응접기사〉가 실려있습니다. 이 책에 강화도조약 체결 현장을 그린 그림이 한 장 나와요. 조선 대표 두 사람과 일본 대표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은 모습이에요(사진4). 사실이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문제의 ‘사진3’보다는 훨씬 진실에 가까운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강화도조약은 분명 아쉬운 사건입니다. 성찰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강화도조약으로 느끼는 부끄러움의 상당 부분은 사실과 거리가 먼, 왜곡된 기억이 원인입니다. 왜곡을 바로잡고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기고

‘체육 대통령’ 된 유승민, 강화를 빛내다



이 두

언론인
(전 조선일보 인천취재본부장)

어린 시절을 강화에서 보내고 탁구 선수가 되기 위해 아버지 손에 이끌려 육지로 나갔다. 일찍부터 탁구 신동이란 소리를 들었으며 국가대표가 되었다. 마침내 올림픽에서 탁구 최강 중국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자랑스런 강화인상’을 받기도 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되어 대한민국 체육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탁구협회장도 맡아 한국 탁구 발전을 이끌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지난해 연말 체육계를 놀라게 하고 강화의 이름을 다시한번 드높이는 일을 해냈다. 주인공은 바로 올해 43세의 나이에 ‘체육 대통령’이라 불리는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된 유승민이다.

지난해 연말 치러진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승민 전탁구협회장은 이기흥 현 체육회장을 꺾는 이변을 연출했다. 이번 선거는 사실 현체육회장의 조직력과 자금력이 워낙 막강하기에 이른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유되기도 했으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셈이다.

강화군 체육인들은 유승민 체육회장 당선에 기쁨을 강화군민들에게 알리고자 얼마전 강화군 이곳저곳에 축하 현수막을 걸었다. 강화에서 큰 인물이 났음을 알리고 함께 기뻐했다. 많은 사람들이 유승민이 강화 출신임을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됐고 강화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 기회도 됐다. 축

하 현수막을 내건 주체는 ‘자랑스런 강화인상 수상자 일동’이다. 유 당선인도 아테네올림픽 금메달 획득으로 자랑스런 강화인상을 받은 바 있다. 설 연휴를 가족과 함께 보낸 유승민 당선인은 경인일보에 “강화의 기운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땀으로 강화는 나에게 상징적인 곳”이라고 밝혔다.

유승민은 1982년 태어났다. 아버지가 탁구를 즐겼으며 인천에서 탁구장을 운영하기도 해 어려서부터 탁구 라켓을 잡았다. 인천 주안초등학교로 진학해 탁구부 입부를 희망했으나 어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1991년 탁구를 하기 위해 인천도화초등학교로 전학을 갔으며 6학년 때인 1994년 부천의 오정초등학교로 전학해 졸업했다. 1995년 경기 부천 내동중학교로 진학했으며 중학교 3학년 때 최연소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로 발탁됐다. 청소년 시절 각종 대회를 휩쓸어 일찌감치 탁구 유망주로 떠올랐다. 초등학교 5,6학년 때 전국 대회 10관왕에 올랐고 내동중 3년 때 전국 대회 전관왕에 오르면서 국가 대표가 됐다. 1999년 아시아청소년대회 단식 우승, 2001년 중국오픈 복식에서 우승했다.

그가 선수로서 가장 화려한 빛을 발한 순간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이었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중국의 왕하오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 때 강화는 온통 잔칫집 분위기였다. 유승민 선수가 결승전을 치르던 날, 강화군 하점면 이강리 유 선수의 집 마당에는 동네 주민 40여 명이 모여 텔레비전을 보면서 감격의 순간을 함께했다고 한다. 이튿날 유 선수 부모가 60여가구 100여 명의

주민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다. 금메달을 걸고 귀국했을 때 역시 동네 주민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으며, 강화군청에서는 유 선수 환영식이 벌어졌다.

2014년 현역 은퇴후 잠시 코치 생활을 했다. 2016년 IOC 선수위원 선거에 나선다. 불리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선수들을 일일이 만나는 등 선거활동을 열심히 해 IOC선수위원으로 선출됐다. 2019년에는 대한탁구협회장으로 선출돼 탁구협회를 이끌기도 했다.

유 당선인은 아직 취임 전이지만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현장을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하며 함께 했다. 14일에는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방문했다. 현황 보고를 받고 훈련장 시설을 둘러봤다. 그는 아울러 국가대표선수촌 훈련 시스템과 관련해 “엘리트 체육 시스템은 위기이며, 더 소외돼 있다.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종목 위주의 선수촌 시스템 폭을 넓히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온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오랫동안 묵어있던 체육계를 완전히 환골탈태 시키기를 국민과 체육인은 열망하고 있다. 지난해 파리올림픽서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발언과 체육계의 만연된 구태를 하루빨리 청산해 주기를 바란다. 정부와의 호흡도 잘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체육회장은 체육 대통령으로 불리는 자리로 한국 체육을 가장 앞에서 이끄는 자리다. 유승민 체육회장 임기는 2월 28일부터 시작한다. 임기는 4년이다.

기고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이재봉

아인세무회계 세무사

해당 제도는 2024.01.01. 이후로 시행된 것으로 시행일 이후 발생한 증여건에 대해서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해당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요

1) 증여자는 직계존속이

여야 합니다. 즉 (조)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들면 삼촌이 조카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친족이 증여하는 것이므로 해당 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친족의 증여는 공제한도가 일천만원(1,000만원)입니다.

2) 증여일은 아래와 같아야 합니다

- 혼인의 경우 : 혼인신고일 전 2년부터 혼인신고일 후 2년으로 총 4년입니다. 법률혼만 인정되며 사실혼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출생의 경우 : 자녀의 출생신고일(입양은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입니다.

3) 공제한도

- 일반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이 증여하는 경우는 오천만원 (5,000만원)이나 혼인·출산의 경우는 별도 1억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2. 기타사항

- 증여재산의 종류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재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은 가능하나 보험 등을 이용한 증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제한도가 평생 1억이라는

점입니다. 재혼,삼혼, 둘째,셋째 건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인의 경우 증여 후 2년내 혼인을 하지 않는 경우(단,약혼자의 사망과 같은 타당한 사유의 경우는 제외)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수정신고 혹은 기한 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이 선택은 가능합니다.

- 혼인으로 오천만원(5,000만원)공제 후 출산으로 오천만원(5,000만원)추가공제
- 초혼 때 오천만원(5,000만원)공제 후 재혼 때 오천만원(5,000만원)추가공제
- 첫째 출산 때 오천만원(5,000만원)공제 후 둘째 출산 때 오천만원(5,000만원)추가 공제

참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3조의 2”

참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132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1543

강화군,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로부터 성금 1천만원 기탁받아 저소득층 학생 위한 지원금으로 쓰일 예정



강화군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성금 기탁받아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대표 박은상)가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위한 성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는 지역사회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 강화군은 기탁된 성금을 통해 지역 내 교육복지를 강화하고,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탁식에서 박은상 대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대한건설협회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의미 있게 전달 하겠다”고 전했다.

강화군, (주)강화글로벌식문화예술단지로부터 성금 1천만 원 기탁받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복지 지원에 활용



강화군 (주)강화글로벌식문화예술단지 이웃성금 기탁식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주)강화글로벌식문화예술단지(대표 이우영)에서 이웃돕기 성금 1천만 원을 기탁 했다고 밝혔다.

(주)강화글로벌식문화예술단지는 내가면에서 스토너리 호텔 리조트를 운영하며 강화군 관광 활성화에 다방면으로 기여하고 있는 곳이다. 이번 성금 기탁은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기탁식에서 (주)강화글로벌식문화예술단지 이우영 대표는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동참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눔을 실천해 주신 (주)강화글로벌식문화예술단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부자의 뜻을 반영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복지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양도면 동광중학교 학생자치회, 직접 수확한 농산물 수익금 성금 기탁 학교 축제 부스 운영 등으로 기탁금 모아



강화군 양도면 동광중학교 성금 기탁

강화군 양도면 동광중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자치회)에서 지난 10일 이웃돕기 성금 419,500원을 양도면사무소에 기탁했다.

이날 준비한 기탁금은 학생들이 직접 수확한 고구마, 무, 배추 등 텃밭 작물을 판매하며 얻은 수익금이어서 훈훈함을 더했다. 학생들은 학교 축제에서 부스를 운영하고, 진강산 마을 교육 공동체에서 주관하는 씨마켓에 참여하는 등의 노력으로 수익금을 모았다.

이순규 양도면장은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주신 학생자치회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소중한 나눔의 손길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탁된 성금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 가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강화군, 고향사랑기부제 3년 연속 최고액 기부자 나와

3년 연속 최고액 기부자 / 김영식 (주)뉴월드오토컴퍼니 대표



강화군, 고향사랑기부제 3년 연속 최고액 기부자 나와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연 최고 금액인 500만 원을 기부했다. 올해에도 500만 원을 연이어 기부하며 3년 연속 강화군의 최고액 기부자가 됐다.

김영식 대표는 “강화군 지역발전을 위해 기부할 수 있어 기쁘다”며 “강화는 쌀, 인삼, 고구마, 김치 등 농특산물의 품질이 우수해 답례품을 받아볼 때마다 만족스럽다.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 기부에 함께 참여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용철 군수는 “3년 연속 고향사랑 기부로 강화에 마음을 보내준 김영식 대표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기부금은 이웃사랑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해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부터 개인별 기부상한액이 연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확대되었다. 기부금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을 초과하면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까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강화군에 기부를 희망하는 분들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전국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을 방문하면 된다.

- 최벽하 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5일 김영식 (주)뉴월드오토컴퍼니 대표가 고향사랑 기부제 3년 연속 최고액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김영식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 시행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신임 교동면장, 이웃사랑 백미 나눔으로 첫걸음

축하 화환 대신 받은 쌀 250kg 취약계층 전달



신임 교동면장 이웃사랑 백미 나눔

강화군 최동관 신임 교동면장이 백미 250kg을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면서 면정업무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에 전달한 백미는 최동관 면장이 제43대 교동면장으로 취임하면서 축하 화환 대신 받은 것으로 의미를 더한다. 최 면장은 홀로 계시는 어르신 댁을 방문해 쌀을 전달하며 한파 대비 상황을 챙기고 안부를 확인했다. 또한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살뜰히 살피며 가족 같은 따뜻함을 선사했다.

쌀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면장님이 직접 방문하여 안부도 물으시고 쌀 까지 전해 주셔서 교동면이 더 따뜻해지는 것 같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최동관 교동면장은 “축하의 의미로 보내주신 쌀로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달하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행정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발로 뛰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연을 담은 강화섬의 맛!

강화도농특산물



강화군수가 보증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따뜻한 이야기를 목격하거나 경험하신 독자께서는 강화투데이로 투고 해주세요! 많은 분들께 따뜻함을 전달하여 함께 느끼고 함께 감동하며 숨은 곳에서 따뜻함을 전달하는 분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면역력 약한 어르신, 봄철 생활관리 수칙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과 휴식
체온 유지
개인위생 관리
실내환경 관리



따뜻한 봄이 되었다고 해도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커서 항상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거기에 예쁘게 피기 시작하는 꽃을 시샘하여 찾아오는 꽃샘 추위가 느닷없이 찾아오는 시기가, 또 봄입니다.

봄이 되어 날씨가 풀렸다고 마음 놓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겨울 못지 않은 추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꽃샘 추위가 오면 젊은 사람들조차도 옷깃을 여미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노인들의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한, 봄에는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밀려오고 꽃가루가 날립니다. 이러한 대기 환경들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 질환 등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위험이 커지므로 봄철 건강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감기 예방법

갑자기 찾아온 꽃샘 추위와 황사 등에 자칫하면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거기에 면역력까지 떨어져 있으면 더욱 위험하므로 평소 건강한 생활로 면역력을 높여야 합니다.

1.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으로 적정량의 식사를 하되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도록 하며 특히 제철 음식들을 통해서 풍부한 영양분을 취하도록 합니다.

2. 규칙적인 운동

운동은 체력을 높여주므로 평소 체력 관리를 위해서 규칙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어찌다 한번,

많은 시간을 들여 격하게 운동을 하는 것은 체력 향상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새롭게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운동 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이후 서서히 시간을 늘려갑니다. 운동 횟수는 최소 주 3일 이상 하도록 합니다. 운동 시에는 땀 흡수가 잘되면 소재의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3. 충분한 수면과 휴식

피곤하지 않도록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4. 체온 유지

봄철 일교차나 급작스런 꽃샘 추위에 대비하여 옷은 여러 벌 겹쳐 입도록 합니다. 필요 시 옷을 덧입거나 벗도록 합니다.

5. 개인위생 관리

손에 병원균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의식적으로 손으로 눈이나 코, 입 등을 만지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손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옮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출 후에는 비누로 손과 발을 깨끗이 씻도록 하며, 건조해지기 쉬운 구강청결에 힘쓰며 양치질을 생활화합니다.

6. 실내환경 관리

실내가 건조하지 않도록 적정 습도를 유지하고 환기를 잘하도록 합니다. 건조한 공기는 코의 점막도 건조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코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

릴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환기 시에는 황사나 미세먼지 예보 등을 확인합니다.

봄철 피부 관리

겨울철 건조함은 호흡기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절이 바뀌어 봄이 되었다고 하여도 건조함이 “씩~”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봄에도 여전히 공기가 건조하지요.

특히나 피부가 건성이거나 아토피가 있는 경우에는 건조함이나 아토피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봄마다 찾아오는 황사, 거기에 미세먼지까지, 올 봄은 피부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겠습니다.

목욕이나 샤워, 세안 시에는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씻고 난 후 물기가 마르기 전에 로션이나 화장수, 보습제 등을 바릅니다.

가능하면, 황사나 미세먼지 예보가 내린 날은 외출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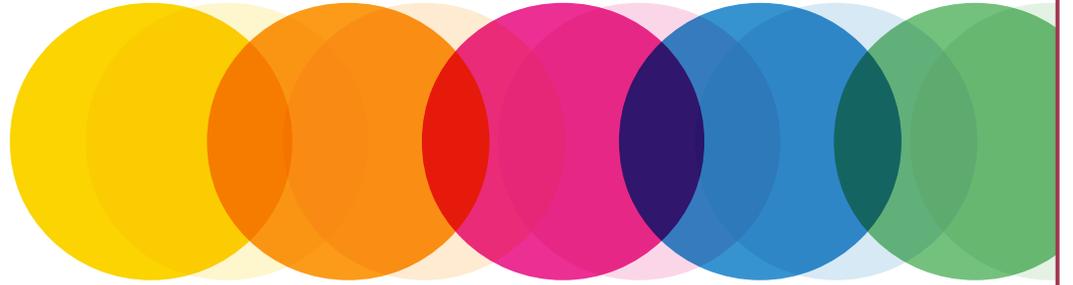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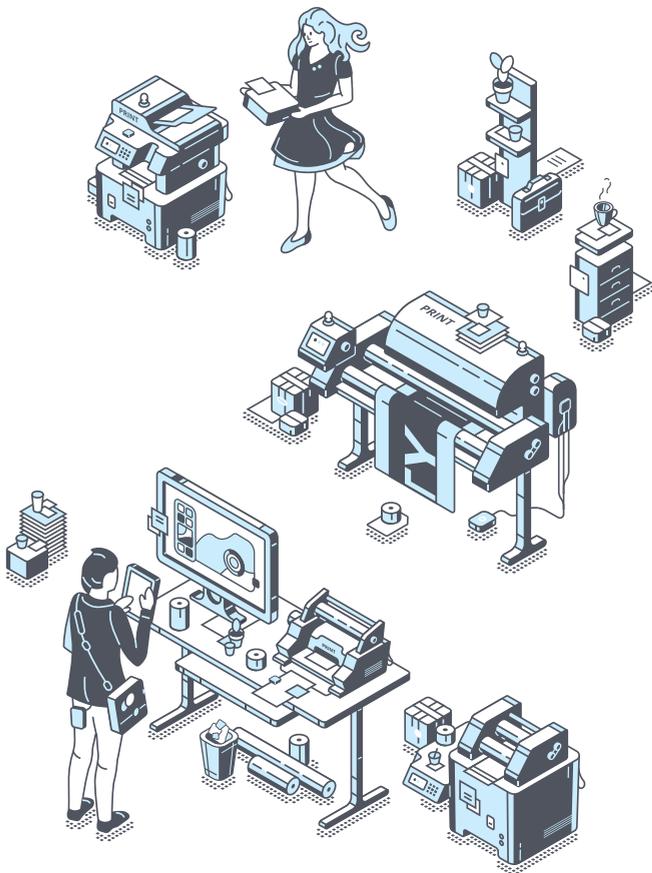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한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고 먼지가 피부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파우더를 발라 차단 막을 만듭니다.

꽃샘 추위, 황사나 미세먼지, 꽃가루까지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많으니, 여전히 봄에도 기상 예보에 주의를 기울여 꽃샘 추위나 황사, 미세먼지 예보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상기 생활 수칙들을 지키시어 건강한 봄 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화인쇄광고기획

인쇄 & 복사 광고기획 디자인 전문



명함	봉투	스티커	팩스	스캔	포스터
달력	수첩	전단지	제본	무선	스프링
상패	명패	쇼핑백	인쇄	복사	청첩장
배너	깃발	현수막	전산용지	NCR지	
행사	홍보	기념품	책	전문 출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6(강화군청 앞) F 032.934.2924

T 032.934.2923

利化



도령가구

쇼파 맞춤가구 전문 공장직영

불박이장농 · 침대 · 쇼파 · 돌침대
싱크대 · 신발장 · 사무용가구
비규격 주문제작 및 출장 이동 수리

- 가구리폼 천갈이 A/S
- 낫 칼 가위 농기구 갈아 드립니다

- 샵 낫 호미 농기구 자루 교체 수리
- 서랍 밑 빠짐, 레일 경첩, 손잡이 장식외 부속품
- 싱크대 배수구, 후드 수전 문짝수리 가스렌지 교체

도령가구

공장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220-1 타이어뱅크 앞

M. 010-3304-8982 T. 032-932-8982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